

弘報教育 및 国民啓導에 期待크다.

予防的 優先政策事業에 講辭

成 茂

〈서울시소방본부 행정과〉

福祉社會建設, 우리가 追求하는 理想의인 希望이며 目標이기도 한 것이다.

이를 具現하는데 온 國民의 쏟은 피와 땀이 結晶體가 되어 오늘의 祖國發展을 이루어 놓았다. 하나, 이 공든 塔이 한 瞬間에 젓더미로 변해 버리는 高層建物 火災를 한번쯤 생각 해 보자.

여기에는 建設의 施行錯誤, 社會發展의 自己矛盾과 깊이 관련하여 火災의 瘡疾의 脆弱點과 더불어 防火上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問題點을 안고 있으므로 每年 우리 주위에서는 大型火災로 인하여 엄청난 人命과 財產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를 想起하는 意味에서去年의 큰 火災를 類型別로 들어 본다면 大然閣호텔, 大旺코너 等의 高層建物火災, 서울 南大門市場, 大邱 西門市場 等의 常習의인 市場火災, 구미工團 윤성紡織火災等은 그 原因自體는 极히 사소한 것이었으나, 그 建物이 안고 있는 瘡疾의in 防火上 脆弱點은 애당초 부터 自己矛盾과 問題點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었다. 近代 人類社會構造는 科學文明의 高度發展과 工業成長立國政策에 맞추어, 급속히 膨脹化, 複雜化 되어 감에 따라 火災의 危險要素도 증가됨은 물론 火災

發生樣相이 달라졌고 그 크기도 大型化되었다.

相對的으로 人間은 發展된 物質文明에 도취되어 어버린 듯, 여기에 자신의 生命에 直接, 間接의 위협을 주는, 災害要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려 들지 못하고, 또한 이를 意識, 無意識의으로 看過해왔고 災害要因을 除去하기 위한 根本對策에 대해서는 동한시하고 귀찮은 일로만 여겨왔지 않았는가?

지난 10月 11日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防火示範빌딩이 韓國火災保險協會에 의하여 서울 여의도에 建立 竣工 되었다. 우리의 經濟成長에 비한다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建立의 目的이 防災示範의 見本이 되는 垂範效果와 防災展示場의 弘報教育 및 國民啓導에 있다는 점에 그意義는 자못 크며 기대되는 일이라 생각된다. 이 建物은 地下 1層地上 15層(延建坪 5千 6百餘坪)의 高層建物로서 이 建物이 지닌 完璧한 防災施設 내용을 듣다면 우선 設計에서 防災專門家를 동원하여 建築法上 防火區劃의 徹底화, 全建物의 不燃化와 消防施設로서 全層의 스프링클러設備, 泡沫消防設備, 碳酸ガス消火設備 및 自動火災探知設備,

自動火災速報設備，非常脫出緩降機，放送設備等이 있고 非常電源施設，全防災設備에 대한 統制管理裝置와 屋上에는 헬기着陸裝置도 되어 있다. 또한 한가지 중요한 것은 本建物 内部에는 常設防災展示場이 있어 建物 自體의 完全 防災設施은 물론 教育用 器材設施을 갖춘 弘報 및 教育用 建物로서 萬全을 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建物을 建立하는데 40億원이나 되는 많은 財源을 投入, 巨視的인 앞날을 내다보며 80年代의 防災目標를 겨냥한 첫 발을 옮겨 놓았다는 것에 國民의 한사람으로 韓國火災保險協會의 용기있는豫防的 優先政策事業이란 느낌에 讀辭를 보내는 것이다.

大韓民國에서 火災危險度가 전혀 없다고 보는 建物이 지금은 비록 本防災示範ビル딩 하나밖에 없는 셈이라지만 앞으로는 이와같은 建物이 漸次增加될 것을 생각할때 우리의 防災業務는 그야말로 巨步를 내딛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아직도 火災防止를 위하여 根本의으로 講究되어야 할 대비책과 問題點을 대부분 해결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既存建物과 施設物에서 狀態의으로 남아있어 防火管理面의 큰 부담을 안고 있는데 加增하여 人間의 過失, 忽慢等 行爲的 要因과 함께 모든 火災의 背景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는 否認못할 현실인 까닭에 根源的인 對策을 모색하는 의미에서 잠깐 이紙面을 빌어 火災의 背景과豫防理論中 弘報敎育의 重要性에 대하여 提言코자 하는 것이다.

첫째, 火災의 背景的 理論.

火災는 여러가지 크고 작은 원인들이 複合的으로 一致性과 連鎖的 狀態에서 야기된다고 한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不安全한 狀態와 行爲가一致되거나 接續함으로써 모든 火災는 발생한다. 즉 不安全한 狀態는 大部分 對物的 要因들이며 不安全한 行爲는 對人的 要因이라 大別할 수 있는데 火災는 背景과 원인에는 이 對物的 要因과 對人的 要因이 반드시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多角的으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

면 再發防止를 위한 合當한 對策이 나오지 않는다는. 즉 예를들면 油類에 의한 火災를 電氣에 의한 火災라고 보자.

對策은 엉뚱한 길로 나가 油類에 의한同一火災는 계속 反復發生을 할 것이다.

우리는 火災를 수없이 觀望하고 또 體驗해 본 입장에서도 아주 그릇된 認識들을 가지고 있다. 火災의 背景的 遠近 원인과 間接的, 助長的 원인을 파악하려 들지않고 火災가 발생하기 직전의 상태와 행위인 直接적인 원인만을 파악하고 그 直接적인 원인제거에 관한 單純, 消極的豫防對策과 行爲者の 차별로서 사건의 처리는 끝낸다. 여기서 제일 重要한 根本的 對策이 火災의 遠因과 間接, 助長原因에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할 것이다.

遠因, 間接 助長等의 각 方향의 到出된 원인에 따라 多角의이고 效果的인 對策이 講究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根本의인豫防對策, 多角의인 對策, 效果의인 對策이 무엇일까?

이는 狀態의인 對物改善對策과 行爲의인 對人敎育의 對策인 것이다. 즉 전자는 施設改善 防火對策인 防火設備 및 장치이고 후자는 訓練,敎育, 技術의 함양, 行爲의 團束과 統制等 啓蒙敎育의 對策을 망라하는 것이다.

둘째, 弘報敎育의 重要性

火災統計分析의 專門家인 “하인리히” 博士는 다음과 같은豫防理論을 전개하고 있다.

防災活動對策에는 (1) EDUCATION, (2) ENGINEERING, (3) ENFACEMENt 즉 「3E」 方策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豫防對策에는 교육과 啓蒙이 제일 앞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防火管理에는 이 「3E」 方策을 절대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현실을 비교해 보자.

우리는 제일 중요시되는 첫번째 단계인 “EDUCATION” 활동단계를 등한시하는 경향이고 보면 지금까지 防災活動의 순서와 비중을 무시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階級의 防火管理에 대한 認識과 態度 轉換을 위한 弘報活動이 极히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火災는 70% 이상이 心理的 결함에서 그는 認識 不足과 未熟함, 그리고, 방관하는 무관심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우선은 啓蒙과 弘報活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로는 기술적인 관리와 專門知識으로 研究發展된 工學의 改善措置가 講究되어야 하고, 셋째는 確認과 監督活動을 增大시켜야 한다는 것이 「3E」 方策의 基本 概念인 것이다.

또 “하인리히” 博士는豫防의 五大 原則을 主張, 定理하고 있다. 즉 (1) 組織 (2) 危險에 對한 知識 (3) 危險素材 發見 (4) 對策選定 (5) 適用(實踐) 등 다섯지가이다. ◇

첫번째, 組織은 防災業務를 담당하는 기관과 要員을 通稱한다고 보겠다.

두번째, 危險에 對한 知識 習得을 強調하여, 여기에서도 教育 啓蒙의 絶對 優先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危險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 危險素材發見 즉 防火診斷을 해야한다고 조리있게 주장하고 있다.

이상 2 가지의豫防理論이 말해주듯이 火災를豫防하는데에는 社會構成員에 대한 啓蒙, 宣傳, 弘報活動이 무엇보다 先行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임을 “하인리히” 博士의 定理를 들어 다시 한번 강조해 두고자 한다.

이와같은 火災 背景의 理論 2 가지의豫防原則에 비교하여 볼 때, 今般의 防災示範 빌딩의 建立은豫防理論에 一致되고 合當한 事業이 아닌가 여겨진다.

앞으로 이 빌딩의 活用方案은 國民의 防火思想鼓吹와 教育을 위한 道場으로 教育的, 啓蒙的弘報廣場으로 마땅히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몇가지 活用方案을 든다면

1. 建物施設主, 管理者, 公務員 및 各種事業場 從事員等에 垂範效果展開

가. 示範防災 빌딩의 社屋은 全國民에게 公開,

널리 傳播하여 波及效果를 거두어야 할 것 같다. 우선 建物施設主와 施設의 管理層 特히 防火管理者, 建築分野 從事者 等에 見學케 하여 이들로 하여금 自省 自覺케 하고 자극을 주어 向後新建築物은 물론이거니와 기존건물도 最善의 完全防災建物로 擴大改善시키는데 管理層의 心理的 轉換을 꾀하고 鼓舞시켜야 겠다.

다. 防災有關當局과 협의하여 消防公務員, 建築職公務員, 建築技師 등 防災聯關 從事要員들에게 示範빌딩의 必須的 見學을 도모하여 이들로 하여금 防災業務遂行에 指導的, 技術的 산 識見을 심어주어 對民의 指導와 施設改善 適用面에 있어 과감한 實踐效果를 거두어야 겠다.

2. 常設防災展示場 活用

가. 示範빌딩內의 常設 防災展示場을 설치하고 있으니 만큼 防災에 대한 啓蒙, 宣傳 및 弘報의 道場으로 만들어 防災有關機關, 公務員, 消防組織, 防災施設業者 및 從事員은 물론各界各層의 指導級 管理層과 學校 管理教師에게 까지 展示場 見學을 필히 실시도록 하고 各級 有關機關 및 團體에서 시행하는 防災關係 Education「코오스」에 이 教育場 見學을 적극 권유케 한다든지 또는 火災豫防 專門機關인 韓國火災保險協會에서 年間 弘報教育計劃을 수립, 대상자를 선정하여 年中 定期教育을 실시하는 制度의 弘報活動과 地方에서 上京하는 修學旅行 學生들의 見學도 대거 誘致하는 等의 여러가지 方案들이 있을 것이다.

나. 특히 消防當局과는 긴밀한 협력으로 防火管理者 講習과 弘報教育에 本展示場의 活用 方案이 강구되어졌으면 한다.

다. “타워링” 같은 大火災映畫를 本 展示場에서 계속 또는 巡迴上映하여 警火思想을 全國民의 意識속에 깊이 심어주는 계획등의 효율적인 방편이 곁들여 졌으면 더욱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弘報教育 展示場의 알찬 資料를 풍넓게 확보할 것과 視聽覺教材 및 教育施設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상 活用代案을 몇가지 열거했지만 모두 일반 보편적인 것에 불과하며 앞으로 實效的인 活用方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그러므로써豫防의 專門機關이 맡고 있는 安全點檢과 불조심 弘報라는 兩大業務가 相互調和를 이루는 가운데 우선 弘報가 앞서야만 順序있는豫防活動

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끝으로 防災示範 빌딩과 防災展示場活用에 따른 보다 큰 效果를 온 國民과 함께 기대하는 바이며 아울러 現下 우리 처지에서는 弘報活動의 力點遂行이 急先務라는 것을 此際에 再參 強調해 두고 싶다.

끝.

火災豫防은 우리 모두의 課題입니다

- ◎ 겨울철 특히 年末年始의 連休에는 不注意로 인한 火災가 많이 發生합니다.
- ◎ 消防當局이나 本協會에서 指摘한 危險要素들은 속히 改善하시고 警備巡察도 強化하셔야 하겠습니다.
- ◎ 國內初有의 防災示範建物인 本協會社屋은 常設防災展示場과 防災센타·防災研究室을 경비하고 있습니다.
- ◎ 특히 防災展示場은 各種 防災施設模型의 電子式作動으로 實物效果를 기했고 防災設備의 作動順序·調整方法의 說明, 防災器具·映畫·스라이드·「와이드칼라」등 다채로운 方法을 動員 완벽한 防災教育이 가능하도록 갖추어 平日에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見學할 수 있도록 開放하고 있습니다.
- ◎ 또한 相談이나 冊字配布등으로 여러분의 火災豫防常識을 넓혀 드리고 있으며 火災豫防啓蒙映畫도 無料로 巡回上映해 드리고 있습니다.
- ◎ 常設防災展示場의 見學, 火災豫防啓蒙映畫의 觀覽, 기타 火災豫防에 관한 相談을 要하시는 분들에게 本協會는 最大限奉仕해 드릴 것입니다.
繼續 여러분들의 利用 있으시기 바랍니다.

社團
法人 韓國火災保險協會

電話(交換). (782)8111~25, 8211~6, 8157~9
弘報部 직통 (782)8156